



My name is Sister Mary Clark. I grew up in Pittsburgh, PA, and entered the Sisters of Charity September 12, 1957. This was a hard time for my parents and my younger sister, Jeanne. That summer, my brother entered the Passionist novitiate; another brother got married and was immediately sent by the army to Colorado, then to Germany. My older sister was married and lived elsewhere in the city. Our family home was emptying. It was happening so quickly.



As a young sister I remember realizing that three aspects of my childhood played important roles in who I am as a person: 1.) my wholesome family; 2.) our parish of Sacred Heart, influential in forming our religious and spiritual lives; 3.) the two weeks each summer I spent at Camp Rosary where the mountains and trails just became a part of me.



The varied ministries to which I've been assigned and the people I encountered there have impacted my life with a richness and joy, far beyond any blessing I could have expected.

Since 2016 I have been in relationship, eventually friendship, with a refugee family from Iraq, mother, father, and two boys, Noor and Yousif, ages 8 and 9. They often depend on me for help in adjusting to their new country and I often find myself looking forward to being with them. They ask about my gray hair. No wonder I sometimes think of them as my grandchildren. They are soon expecting a new baby in their family.



In 6th grade, I was inspired by a portrait of Elizabeth Seton on the front wall of our classroom. I saw in her a depth and a strength I knew I wanted for my life. In 8th grade, we wrote the story of our lives. The title for my life story then speaks for me still. God has blessed me in many unique ways; ways that only God could design. The title of my story, then and now: *"I'm Glad I'm Me."*





저는 메리 클락 수녀(Sister Mary Clark)입니다. 펜실베이니아 주 피츠버그에서 자라 1957년 9월 12일에 수녀회에 입회했습니다. 그 때 저의 부모님과 여동생 진(Jeanne)은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 해 여름에 오빠 한 명이 예수 고난회에 입회했고, 다른 한 명은 결혼해서 곧바로 콜로라도로 군입대를 한 후 독일로 갔고 언니도 결혼해서 피츠버그에 살았거든요. 이 모든 일들이 빠르게 일어났고 그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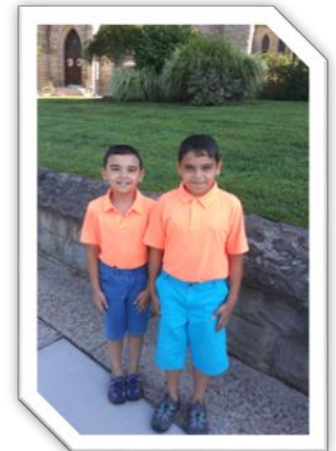
저희 집이 텅 비어 버렸지요.

수도자로서 젊었을 때, 어린 시절의 세가지 요소가 한 인간으로서 나 자신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첫째는 저의 가족이고, 둘째는 저의 신앙생활과 수도생활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친 성심 본당, 셋째는 매년 여름이면 산과 숲이 저의 일부가 되어 지냈던 2주간의 여름 캠프 로사리아(Camp Rosary)예요.



파견 받았던 다양한 사도직과 그 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제 삶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축복 이상의 풍요로움과 기쁨을 주었지요.

2016년부터 저는 이라크에서 온 한 난민 가족과 가까이 지내며 우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부부와 8살과 9살의 두 아들 누(Noor) 와 유시프(Yousif)예요. 이들이 새로운 나라에서 적응하는데 저의 도움을 필요로 하며 저에게



의지하고 있고, 저 역시 그들과 함께하기를 기대하고요. 이들은 제 흰머리에 대해 물어보기도 해요. 저도 때로 그 가족들을 제 손자들이라고 생각하지요. 이제 이 가족은 새 아기가 태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6학년 때 교실 앞 벽에 걸려있던 마더 씨튼의 초상화를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 모습 안에서 삶에서 제가 바라는 깊이와 힘을 느꼈지요. 8학년 때는 자신의



삶에 대한 글을 썼는데 그 때 제 이야기의 제목이 지금도 저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많은 특별한 방식으로 저를 축복해주셨어요. 하느님 만의 방법으로요. 그 때나 지금이나 제 이야기의 제목은 같습니다. '나는 내가 나여서 좋다.'